

† 마데테스는 제자라는 헬라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느낀다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사람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제심만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사랑에 빛진 자로
모입니다.

우리는 무심하게 산다.

신 윤 식

나를 스쳐가는
바람결을 느끼면서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 적 있나

내 어깨를 적시는
빗줄기를 보면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 적 있나

세상에 하얗게 쌓이는
함박눈을 보면서
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한 적 있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어디든 나서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할 수가 있나

가장 가까이 있는 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에도
무심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1.16

발행호수 제19권 3호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곧 행복을 창출한다는 논리 아래 서로 마음에 이끌리는 상대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때문에 결혼으로 행복하지 못한다면 자기 행복을 위해 이혼을 하기도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허술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은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경우 소송을 당한 쪽에 이혼에 합당한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의 이혼 문제는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 이것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6)라는 성경을 근거하여 아내를 향한 당연한 요구사항으로 존재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의 일부였고, 자식을 낳아 가문을 유지하는 도구였으며 남편의 즐거움을 위한 노리개처럼 취급 받았습니다. 당연히 아내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싫어한다면 적당한 이유를 대어서 율법대로 이혼증서를 써서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아내에게 주어 쫓아 버리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을 위한 존재였으며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버림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미움을 받지 않아야 했고 철저하게 남편에게 종속되어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9절)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사유는 오직 음행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자는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을 했을 때만 이혼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

주일오전설교
마 19:10-12

천국과 고자

대 사회에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문제까지 포함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혼 사유를 오직 ‘음행’ 하나로만 규정한다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이혼 사유에는 음행 외에도 구타, 도박, 술이나 마약 중독 등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원인을 제공한다면 이혼은 합당하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직 음행이 있을 때만 이혼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지금의 부부와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부부 관계가 달랐다는 사실에도 유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이혼이 정당하나 아니냐’가 아니라 오직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 왜 반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행복에 장애가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인데,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꼭 참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불행한 삶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민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10절)는 말로 반발을 합니다. 제자들도 아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싫어지면 율법대로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버리면 율법에 대해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행의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 간음, 즉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보기 싫다고 해도 음행을 하지 않았다면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함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내에게 그같이 해야 한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며 천국은 이러한 속성을 철저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에 대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 어다” (11,12절)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도 결혼의 문제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속성과 천국의 문제에 중점을 둘 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타고난 자 외에는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 행복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이혼 하겠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전 7:32-34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결혼관에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현대인이 꿈꾸는 가정이 이런 것이고 신자 역시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본이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라는 세미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이 갈린 것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의 의미가 부부의 행복에 있지 않고 머리 되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결혼을 생각하겠습니까? 결혼을 해서도 주를 기쁘시

게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내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이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행복을 위해 사는 인간은 천국 역시 자신의 행복을 통해 만족하려고 하게 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 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의 의미 역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화목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한 아내는 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고자’ 라는 말을 하십니다.

고자는 남자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요즘은 남자의 성기능 장애로 인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면 입양을 하면 되고, 또 남자의 그런 결함은 단순히 하나의 장애로 여기지만 유대 사회에서 고자는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신 23: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는 여호와와 함께 들어오지 못한다’ 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로 인해 고자는 유대 사회에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자로 취급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자 되었다는 것은 남자로서 비참한 처지가 됨을 의미합니다.

고자는 결혼을 통한 인간의 행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행복은커녕 비참한 처지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자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가 없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란 고자로 선택 되어 태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 신자로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 신자는 천국이 육신의 행복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진정한 천국을 알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고자가 되어 자기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방종교에는 신을 섬기기 위해 고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자가 되어 가정을 이루지 않고 신만 섬기는 것을 거룩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고자 되는 것이 신을 향한 자기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고자로 인한 인간의 비참과 낮아짐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과 구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고자가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천국을 이루시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참함과 낮아진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로 받아들일 뿐이고 천국 역시 행복한 세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스스로 고자 된 길, 즉 십자가의 길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 된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를 예수님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은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욕망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를 비참함과 낮아지는 길로 밀어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자입니다.

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고 결혼 생활이 힘들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내 행복을 위주로 살아가는 속성 때문에,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삶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은 스스로 고자 된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자신의 악함을 깨달은 낮아진 마음일 때 받아들이게 됩니다. 육신의 행복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자 되게 하시면서 스스로 고자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인해 감사하는 그것을 천국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이 고자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알 수 있는 타고난 자에 해당되는 신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1강 12.26 설교)

현 대교회가 보여주
고 있는 신앙의
여러 양상들을 보면 성경적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들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의 오심을 성경에 근거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신앙이 체험적이며 윤리적
이고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확산되어 있는 '성령치유집회'라는 것도 잘못된 성령론을 근거로 하면서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며 성령의 능력이고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육신적 시각에서 보면 그것처럼 확실하고 체험적인 것이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게 되고, 목사의 입장에서 사람들은 자극하여 교회로 모으는 일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라는 한 방편으로 추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자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품이 변화되고 교회 생활에서도 예전보다 더 열심이 있게 되고 행동 또한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간이 개조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착해지고 윤리적이며 인격적인 변화까지 뒤 따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 거듭남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러한 성령 체험을 원하기도 합니다. 성령 받음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음의 증거로 방언을 강조하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성경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대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성령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오늘부터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절)은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

교를 강조하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남기신 지상명령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이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물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이 말씀을 그러한 의미로만 이해하게 되면 결국 성령은 선교를 위한 권능, 즉 능력과 힘을 주기위해서 오신다는 뜻이 되버립니다.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과 분명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왜 굳이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까?

현대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을 전도와 선교로 이해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곧 증인으로써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러한 전도와 선교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타국에 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인간의 의지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의 오심은 불필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대 교회는 전도나 선교의 의미를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것에만 두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도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착하게 사는 것도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에서 잘되는 것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것은 나의 뜻은 부인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뜻을 앞세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자 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스스로 거지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역할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럴듯한 역할을 원할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용되기보다는 높고 잘된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부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누구는 거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면 거지된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은 부자 되게 하시고 나는 거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당합니다 라고 반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는데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사마리아나 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싶은 곳이 있었지만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형편과 환경이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신 신자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고 어떤 형편에 있게 하신든 그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만약 성령이 없이 '증인이 되어라'는 말씀만 남기셨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 내 이름을 높이는 방식으로 증인 되려고만 할 것입니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하고 성공에서 예수님을 높이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는 성령이 오심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자기중심적 생각이야말로 죄에게 지배 받고 있는 인간의 악한 속성임을 깨닫게 되고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예수를 증거하겠다는 생각이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하나님의 원수된 사고방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신자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 자신에게는 과분한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다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임

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되리라’ 는 말과 ‘되어라’ 는 말의 의미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안 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신자는 인간은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인간에게서 이 같은 증인의 모습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은 병 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시각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그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고전 4:19-20). 여기서 말한 능력은 사도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된다고 해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됨을 위해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구원을 단지 천국 간다는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자리에서 어디로 옮김 받았는가? 라는 시각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던 본래 자리를 생각을 해야 그 자리에서 건짐 받은 은혜가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존귀하다

수요일설교

습 2:4-15

**이방 나라의
멸망**

(3장 15일 설교)

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본질인 죄 문제로부터 출발을 해야 구원의 가치가 생생하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만 몰두합니다. 자기 구원만 확보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 경고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유대와 똑같이 죄에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의 심판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심판에서 건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심판에서 건짐 받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의 원리를 모르는 신자가 없겠지만 문제는 현대 교인들이 죄문제를 이미 예수로 인해 해결된 것으로 여기면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더 이상 죄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면서 실 새 없이 죄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전혀 살지 않은 빈집이라고 해도 먼지가 수북히 쌓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안은 죄로 가득 쌓여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같은 죄의 현실을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묵인하거나 가볍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이용하는 수준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존귀함은 죄로 인해서 절망감을 느낄 때 선명하고도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용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구원 확보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은 죄를 보기보다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종교적 행보에만 관심을 둡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심판에 갇힌 우리를 건지는 능력으로 발휘됩니다. 때문에 ‘구원 받았습시다’ 라고 하면서 용서의 은혜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단지 내 구원을 챙기겠다는 욕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적 자리는 심판이지 구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수치스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받

아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 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는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수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으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악한 유다를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약자를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수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의해서 자기 수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를 보는 신자는 부끄러운 존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의는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고 오직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었드릴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느느웨 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 이 성은 아무 염려 없이 부요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성이라고 일컬을 만큼 행복한 성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염려 없이 부요를 누리면서 **“내가 제일이다”**는 사고방식에 묻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 없이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 심판이 임함으로써 부요와 기쁨은 종말을 고하고 비웃음과 조롱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세상은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에 무지한 세상은 오직 자기를 위해 살아갈 뿐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인생을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악이며 수치라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현실이 보인다면 그것은 세상 밖에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참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서 세상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세상 밖으로 끌려 나왔다는 것을 성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는 믿음 자체가 곧 복이며 기쁨으로 자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헛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질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는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교만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여전히 가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부름 받았습니. 이 은혜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항상 감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보답 하겠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수준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존귀한 구원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저주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선지자의 말을 해석해야 합니다. 인간의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이 꿈틀듭니다. **“나도 구원 받을만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의 세력까지 다스리시면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심판과 저주에 속한 비참한 자기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건져주신 끝없는 긍휼과 사랑에 굴복하게 합니다. 이러한 굴복의 현장에서 나올 것은 용서와 긍휼로 인한 감사뿐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49장
교 독 : 70(사42장)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452장
성 경 : 마 19:10-12
말 씬 : 천국과 고자(121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46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6 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58장
기 도 : 김옥자 집사
찬 송 : 287장
성 경 : 고전 12:3
말 씬 : 성령을 받으면(성령 3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186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스바냐 강해(5강)

■ 교회소식 ■

1. 이사하였습니다. (김현동 집사님 가정)
대구시 북구 구암동 그린빌 4단지 402/401



다음주 기도

오전 조규현 장로 오후 김현동 집사

비판과 정죄의 무서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싸움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비판과 정죄가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싸늘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자연은 그냥 서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일에 힘을 쏟으십시오.

세상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기 기준이 강할수록
혹은 상대를 조종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성격이 강할수록
잘못된 마음이나 뒤틀린 성격이 행동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상대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신 스스로가 만드는 감옥이며 강박일 뿐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상대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겠거나 여기며
더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로
기도해주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표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 된 자의 사명이며 이 사명에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그것은 형제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일 것입니다.

김영길 목사